

북한의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와 함의

정은미(북한연구실장)

Online Series

2023. 12. 12. | CO 23-39

격상된 전국어머니대회의 위상

북한의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2023년 12월 3일~4일 개최되었다. 제5차 대회는 2012년 11월 제4차 대회가 개최된 이후 11년 만에 개최됐다. 지난 제4차 대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비서가 축하 연설을 하고 로성실 여성동맹 위원장이 대회 보고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제5차 대회는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차 대회는 김정은이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고, 이틀째 회의에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리일환 비서가 대회 보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격상된 전국어머니대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어머니대회의 위상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 정권 첫해인 2012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한다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정한 것은 1961년 11월 16일에 개최된 제1차 어머니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¹⁾ 정권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김정은 집권 첫해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머니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통해 그동안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애국을 호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큰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결정적인

1) 김일성은 제1차 어머니대회에서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순간에 어머니들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10여 년 전보다 더 성대한 대회를 조직하고 김정은이 직접 무대에 올라 호소해야 할 만큼 현재의 북한 현실이 절박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정권 수호의 원동력으로서 700만 명의 어머니 공감 얻기

김정은이 개회사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어머니 규모는 700만 명에 이르고, 제5차 대회에는 약 1만 명의 어머니들이 대표로 선출되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거나 고아들을 데려다 키운 어머니들 외에도 군대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키운 어머니들, 수십 년 동안 자기 직장을 지켜온 어머니들, 중앙과 지방의 여성동맹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하며 개회사를 시작하였다. 김정은의 개회사는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일구월십 나라를 받들고 가정을 지키느라 근심걱정 놓은 적 없었을 테고 언제 한번 편히 허리 펼 새도 없었을 어머니들”, “연약한 두 어깨에 감당키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와 같은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 또한 어머니들의 사연을 들으며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5차 대회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섬세하게 연출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면 자기를 낳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첫걸음마를 떼어주며 키워준 어머니부터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은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과 힘이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주의대가정’, 즉 김정은 정권을 지켜내는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문제들을 일소하는 문제, 건전한 문화도덕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문제, 감소하는 출생률을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을 잘하는 문제 등을 직접 열거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의 노력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렵고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임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확산되는 비사회주의의 현상, 가정에서부터 차단 주문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김정은의 연설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는 후세대 양성에서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제일 먼저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어머니들에게 “강대한 우리 국가를 떠받들어야 할 새세대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제1차적인 과업이라고 하며, 가정교양, 학교교양, 사회교양 중에서 가정교양이 “첫자리”를 차지하며, 어머니의 영향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의 교양자적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우선 그는 어머니들 자신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닌 공산주의어머니가 되어야”만 자식들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군대와 경제건설 현장에 자식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집단에 대한 애정과 난관을 이겨내는 의지와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공장과 일터를 지키므로써 자식들 앞에 떳떳한 ‘사회주의근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가정 형편이 좋은 집안의 경우 자식이 군대에 가거나 경제건설 현장에 탄원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여성들이 결혼을 계기로 직장을 떠나 장사와 같은 사적 경제활동을 하려는 세태를 예들려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김정은은 자식들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완전히 소거하는 데 어머니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공부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언어예절을 비롯해 예의와 도덕 교양을 소홀히 하지 말 것과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면서 남보다 특별하게 내세우려”는 것은 잘못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비판하였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색적 현상, 즉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일소하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은밀하게 널리 퍼져있는 한류를 비롯해 외부의 사상문화적 영향을 없애는 데 법적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감소하는 출산률, 물질적 혜택 앞세운 출산 장려

유엔이 발간하는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97명에서 2022년 1.79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북한의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를 감안했을 때 출산률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2012년 개최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최된 제5차 대회에서도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기조는 계속되었다.

제4차 대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제5차 대회에서는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물질적 혜택을 상세히 제시한 점이다. 무조건 어머니들에게 “아들딸들을 더 많이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세대들에 살림집 배정, 식량과 상품 공급, 의료봉사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한 국가적 혜택”들과 특별보조금 형태의 생활비 지급과 같은 우대 조치들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혜택과 우대 조치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가족 생계뿐만 아니라 각종 세외부담과 사회동원 과제들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가부장제적 사회구조 속에서 충분한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물질적 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기간에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정은 수령체제 공고화를 향한 정치 동원

주목할 점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제8차 당대회 이후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김정은 수령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치 무대였다는 점이다. 대회 폐막을 알리는 12월 5일자 노동신문은 제5차 대회가 김정은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로 높이게 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오랫동안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은 ‘조선의 어머니’이자 ‘위대한 여성혁명가’의 대명사로 불렸으며, 김정일시대까지 ‘백두의 3대장군’ 중 한 명으로 우상화됐다. 김정은 정권 첫해에 개최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도 김정숙의 위상은 변함없이 건재하였다.

그런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는 김정숙의 이름이 사라졌다. 제4차 대회가 개최되던 시기에 노동신문은 김정숙 찬양과 우상화와 관련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 개최된 제5차 대회를 다룬 노동신문 기사 어디에도 김정숙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재일교포 출신인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를 공식적으로 내세워 우상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숙 우상화 담론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는 선대 수령들의 후광에서 벗어나 ‘어버이 수령’의 지위를 스스로 내세우고 독자적인 김정은 수령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행사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